

# 이주 고려인도 북한이탈 주민도 “광주의 설, 따뜻합니다”

##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민위안잔치

### 색동한복 아이들 재롱 공연 새날학교 합창단 노래 선물 동포 300여명 즐거운 환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주민지원센터는 때 이른 설 분위기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매우 밝아 보였다.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는 설을 맞아 동포 300명과 영암마트·외환은행 광산지점·이마트 광산지점 등에서 후원한 쌀·과일·설탕 등 생필품을 선물하는 ‘설날맞이 주민위안잔치’를 열었다.

이날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여느 때와 같이 동네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1년 전부터 ‘깔끔이 봉사대’ 반장을 맡고 있는 존발레리(52)씨는 “고려인마을에 터를 잡은 7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친척 30명이 모여 함께 살고있다”며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발레리씨와 청소 봉사를 함께 한 딸 존윤가(29)씨는 선물 가운데 돌이 갖 지난 딸이 신을 꼬가신을 받고 가장 기뻐했다.

잔치는 고려인마을 어린이집 원생 15명의 재롱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세배하고 설날 노래를 부르며 명절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이사씨(6)양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색동 한복을 좋아하게 됐다. 이양은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도와 설날 음식을 만들라는 숙제를 받았다”며 “어린이집에서 배운 세배를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다.

6살 되던 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했던 장윤가(여·77)씨도 한국말을 배운 뒤 첫 세배를 받았다. 광주에 정착한 딸 가족을 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머무를 예정인 장씨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는 마을 문화 덕분에 인지 고려인마을이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끝나고 새날학교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김예브게니(13·새날학교), 니콜(여·10) 남매는 지난해 12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며 노래 ‘You Raise Me up’을 불렀다고 말했다. 김군은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가족을 일으켜 세운 아버지를 위해 이 노래를 골랐다”며 “몸이 편찮은 새 어머니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새해의지를 다졌다.

이날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위전공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동포 김알랴나(여·30)씨를 위해 모은 3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받은 딸 김파나(8)양은 “엄마가 건강해지고 나면 이웃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며 환한 미소로 답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에서는 광주시 지원으로 이달부터 주말마다 한국어 초·중급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강제 이주자로 떠돌다 고국에 돌아온 탓에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고려인 동포가 한국인 이웃과 소통하도록 도우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을 앞두고 최근에는 20~50대 고려인 만학도 20명이 모여 강사를 따라 명절 인사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신조아(여·60) (사)고려인마을 대표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이었던 지난 한해 광주시민으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며 “구한말 연해주에서 공동체를 이뤘던 선조를 기리며 이웃들과 설 명절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교회에서 ‘설날맞이 주민위안잔치’에 참가한 고려인 3세 어린이들이 노래 ‘설날’을 부르며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산구 북한이탈 주민들 설잔치

### “아들아, 엄마를 용서하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100여명 눈물의 합동세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고마운 광주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요. 북(北)에 있는 내 아들이, 못한 엄마를 용서해다오.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해요.”

1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복지관 2층 송광사랑방. 북한 이탈주민들이 미리 설잔치를 벌였다. 이날 열린 설 맞이 합동 차례는 명절이면 고향에 두고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쓸쓸해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경찰서, 광주하나쉼터 등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45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소득이 낮은 140여명과 북한을 떠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복지관 측은 행사가 열리기 1주일 전부터 주변 시장을 돌아다니며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나눠먹을 저녁 식사 음식도 넉넉하게 장만했다.

낮선 남한 땅에서 설 음식을 맛보게 된 참석자들은 모두 환한 얼굴이었다. 가슴 한 켠에는 북의 가족들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얼굴도 모르는 광주사람들이 베푼 넉넉한 마음씨에 한결 푸근해진 표정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그리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 박순옥(여·55)씨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나직이 읽어내려가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함께 모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대표로 편지를 낭독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박씨는 6년 전 북한에 자식과 부모님을 남겨두고서 혼자 한국에 왔다. 그는 “자식들과 부모님, 동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북한을 떠나왔다. 나는 한국에서 명절도 쇠고 잘 지내는데 내 자식들은, 부모님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걱정돼 단 하루도 맘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리워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시간이 끝나자 광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식이 이어졌다. 행사 초반 북에 남아있는 가족, 친지를 걱정하느라 복지관 전체를 감쌌던 우울한 분위기는 이내 사라졌다.

참석자들에게 떡국떡과 사골 곰국에 선물로 주어졌다. 참석자 일부는 서로 안면이 있는지 시간의 안부를 챙기거나 이날 행사에 빠진 가족들의 근황을 묻는 모습도 보였다.

선물 전달이 끝나고 합동차례 순서가 되자 김덕우(가명·57)씨 가족이 차례상 앞으로 나왔다. 김씨 가족이 절을 올리자 뒤에 있던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절을 올렸다. 여느 아이들처럼 이곳 아이들도 어른들이 차례를 지내는 동안 웃고 장난치는 개구쟁이 모습이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저녁식사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북춤, 전통무용 등 공연이 진행됐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공연을 지켜보던 북한이탈주민들도 어깨를 연방 들쭉거리며 한 해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고단함을 털어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송광종합복지관 박혜성(30)씨는 “고향에도 갈 수 없고 친지들도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설 명절은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날”이라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바쁘게만 달려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모여 외로움도 달래고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기 위해 매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각각 600여명, 570여명이 살고 있다. 송광종합복지관은 지난 2012년 추석부터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합동차례를 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길상사,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등이 매년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농업수도 전남, 혁신도시 나주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현대화, 농업용수관리·재해예방, 농지은행·농지연금·농가경영 안정, 농어촌개발·도농교류, 해외농업개발·국제농업협력, 농공기술 연구·인재양성, 농산이촌 행복추진활동